

VIP REPORT



■ 수출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자

- 1·2차 오일쇼크 이후 일본의 대응 사례

■ 2009년 하반기 산업 전망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주량, 주원, 이장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수출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자 - 1·2차 오일쇼크 이후 일본의 대응 사례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오일쇼크 이후 일본 상품의 해외 시장 점유율 추이	7
3. 오일쇼크 이후 일본 수출 기업들의 대응 전략	8
4. 시사점	12
■ 2009년 하반기 산업 전망	15
■ HRI 경제 지표	22

1. 개 요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비중 1, 2위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9.9%에서 2009년 1분기에 10.6%로 상승하였다. 미국 수입 시장에서도 같은 기간 점유율이 2.3%에서 2.7%로 높아졌다. (다만 일본과 EU 시장에서의 올해 1분기 점유율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유율 상승의 상당 부분은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승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2009년 1분기말 기준 원화는 1년 전에 비해 달러화에 대해 39%, 엔화에 대해 55%, 유로화에 대해 16%, 위안화에 대해서는 42% 절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향후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경쟁력 우위가 사라져 시장점유율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일본 기업들이 과거 오일쇼크 이후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해외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갔던 배경을 알아보았다. 또한 80년대 중반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고 高 시대에도 일본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 전략으로써의 수출 확대를 위해 우리 기업과 정부가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았다.

2. 오일쇼크 이후 일본 상품의 해외 시장점유율 추이

70년대 초반 이후 엔/달러 환율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상품의 세계 수입 시장 점유율은 90년대 중반까지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일본은 70년대 초반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달러당 360엔의 엔화 환율이 1985년 239엔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1985년 플라자 합의의 영향으로 엔화 환율은 더욱 하락하여 1989년에는 달러당 138엔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일본 제품의 세계 수입 시장 점유율은 1970년 6.3%, 1980년 6.8%, 플라자 합의 직후인 1986년에는 9.8%까지 높아졌다. 이후 엔고의 영향으로 일본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는 하였지만, 90년대 중반까지도 9%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다(미국 시장에서는 연평균 약 19% 내외 수준을 유지). 특히 플라자 합의 이후 9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의 경우에도 점유율이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같은 기간이 일본 제조업의 생산 기반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된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적인 시장점유율은 이 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오일쇼크 이후 일본 수출 기업들의 대응 전략

이와 같이 과거 일본 제품들이 오일쇼크를 이겨내고 해외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일본 기업들의 끊임없는 생산성 증대 노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도요타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인 JIT(Just-in-Time)를 통해 재고 관리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 기업들의 생산성 증대 노력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70년대 일본 제조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5.8%로 G7국가 평균인 4.4%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80년대에도 일본의 생산성 증가율은 3.7%로 G7 평균인 3.5%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둘째, 연구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력 향상과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였다. 80년대 일본의 R&D 투자(정부와 민간 투자의 합) 증가율은 연평균 7.3%로 미국과 유럽3국(독일, 영국, 프랑스)의 R&D 투자 증가율인 4.7% 및 3.1%와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이에 따라 일본의 R&D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1년 2.3%에서 1990년 3.0%로 증가). 플라자 합의 이후 본격화된 엔고 시대에서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늘려 나갔던 점도 일본 기업들이 90년대 중반까지 세계 시장점유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총 제조업 수출 중에서 하이테크 제품(High Technology Manufactures)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33.4%에서 1995년 37.6%로 증가하였다. 참고로 이 비중은 1995년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2006년에는 22.7%에 불과함)

셋째, 지속적인 품질 관리 노력도 수출 확대의 원동력이 되었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TQC(Total Quality Control), 6 시그마 등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품질 관리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해외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J. D. Power의 IQS(Initial Quality Study, 초기 품질 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1987년 미국 시장에서 불량률이 낮은 상위 9대 자동차 모델중 일본산 자동차가 7개를 차지한 바 있다.

넷째, 특히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고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가격 경쟁력 상실을 극복하였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가격 경쟁력 하락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80년대 후반부터 일본 기업들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하였다. 일본 수출 기업들은 선진국과 같은 판매 시장에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도 하였고, 저렴한 원부자재 조달을 위해 개도국에 부품 공장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제조업 생산중 해외 생산 비중은 1988년 6.4%에서 1995년 9.0%로 크게 높아졌다.

4. 시사점

한국 경제가 수출 확대 전략을 통해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직은 우위에 있는 가격 경쟁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내 상품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소비 행위에는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아직은 환율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격경쟁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별 소비 시장의 특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시장별 소비자 니즈와 기호를 파악하고 이를 제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원고 시대를 대비하여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과주의의 확대, 임직원의 사기 진작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전사적인 원부자재 및 제품 유통 과정의 단순화, 아웃소싱의 확대, 최적 수준의 재고 관리 등을 통해 끊임없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비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가격 경쟁력 하락을 극복해야 한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하게 되면 중국, 아세안 등 높은 가격 경쟁력을 지닌 국가들의 수출 시장 공략이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품질, 기술과 같은 비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해외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 의한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오히려 세계 경제 침체를 기회로 삼아 해외 시장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금융 시장의 경색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여 글로벌 투자 활동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해외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중국, 동남아 등 신흥 시장에 대해서 우리 수출 기업과 현지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상 유관 기관들의 시장 및 유통망에 대한 분석과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향후 예상되는 원자재가 상승이 생산비용 급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은 물론 중국의 경우처럼 정부 차원의 에너지, 원자재 등에 대한 저렴한 공급처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 해외 자원 확보에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급격한 원고를 막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정부의 통상환경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 공동의 해외 IR 개최 등을 통해 국가와 기업에 대한 외국 구매자들의 호감도를 높이고 한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 경제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요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최근의 국제 유가의 재상승으로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 산유국에 대한 수출확대에도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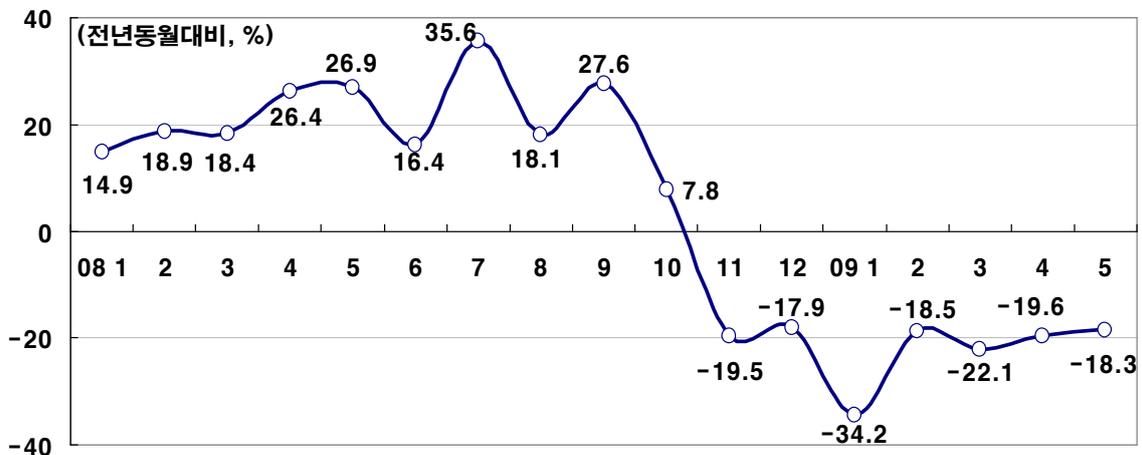
1. 개 요

(1) 우리나라 수출 경기 동향

○ 전체 수출 경기 동향

- 2008년 이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와 교역이 위축되면서 한국의 수출도 작년 11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중임
 - 수출증감률은 2008년 9월 전년동월대비 27.6%를 고점으로 하락세로 진입하였으며, 2008년 11월 -19.5% 이후 2009년 5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중
 -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2008년 연간 13.6%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 들어 1~5월의 기간 동안 전년동기대비 24.5%의 감소세로 전환됨

< 한국 월별 수출증감률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식경제부.

○ 지역별 수출 경기 동향

-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의 21.7%를 차지하고 있는 對 중국 5월 수출은 액정 디바이스(70.1%)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에서 감소세를 기록중임

1.2차 오일쇼크 이후 일본의 대응 사례

- 품목별로는 석유제품(-82.2%), 기초산업기계(-62.7%) 등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중임
- 단일 국가로는 수출 비중 2위를 기록하고 있는 對 미국 수출은 4월 22.7%의 감소세에서 5월에는 20.0%로 감소 폭이 다소 둔화됨
 - 對 미국 수출 품목중 자동차(-67.5%), 반도체(-33.5%) 등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무선통신기기(66.9%), 석유제품(258.6%) 등은 호조를 기록하고 있음
- 우리 수출 비중 13.8%를 차지하고 있는 對 EU 수출도 2009년 5월 20.0%의 감소세를 기록중임
 - 품목별로는 일반기계(-65.4%), 무선통신기기(-52.1%) 등이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선박류(224%), 액정디바이스(42.8%)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對 일본 수출은 5월에 들어 36.3%의 감소율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농수산물(3.2%), 반도체(1.2%) 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외 대부분의 품목이 높은 감소율을 나타냄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비중 (2008)
		1월	2월	3월	4월	5월	
중 국	11.5	-38.6	-13.6	-22.3	-19.0	-22.8	21.7
미 국	1.3	-28.1	-18.4	-27.2	-22.7	-20.0	11.0
일 본	7.1	-34.4	-31.8	-35.0	-31.8	-36.3	6.7
E U	4.3	-40.3	-26.3	-26.1	-19.2	-20.0	13.8
ASEAN	27.2	-37.6	-33.0	-27.8	-25.1	-27.1	11.7
중 동	35.1	-13.0	-9.9	-14.7	-4.9	-32.1	6.3

자료: 지식경제부, 한국무역협회.

주: 2009년 5월은 1~20일 기간.

(2) 한국 상품의 해외시장 점유율 동향

○ 중국 수입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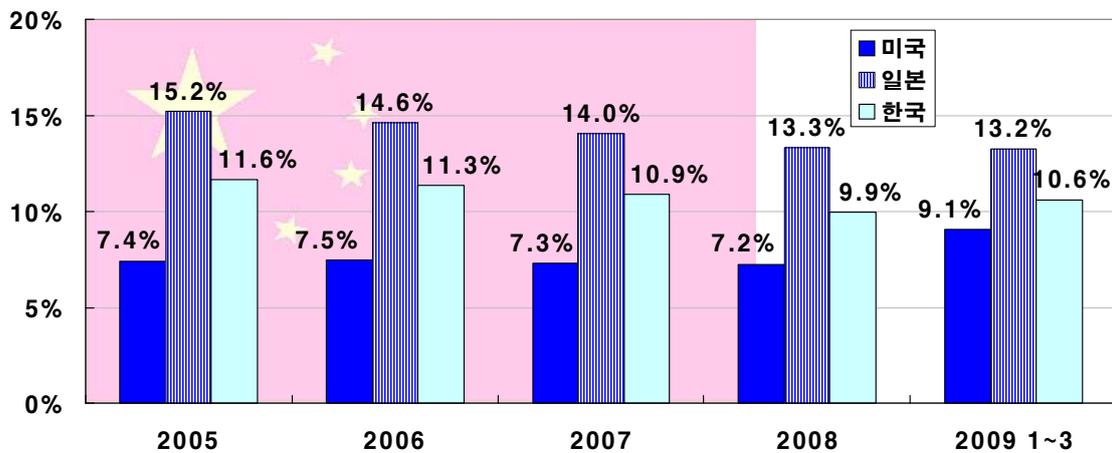
-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 상품의 점유율은 2008년 9.9%에서 2009년 1~3월 기간 10.6%로 상승함

· 이러한 점유율 상승은 많은 부분 위안화 강세와 원화 약세에 따른 원/위안 환율의 상승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원/위안 환율은 2008년 연평균 159.1원에서 2009년 1/4분기 207.0원으로 30.1% 상승하였음

※ 원/위안(元): 125.1 ('05년) → 119.8 ('06년) → 122.1 ('07년) → 159.1 ('08년) → 207.0 ('09년 1/4)

<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 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 미국 수입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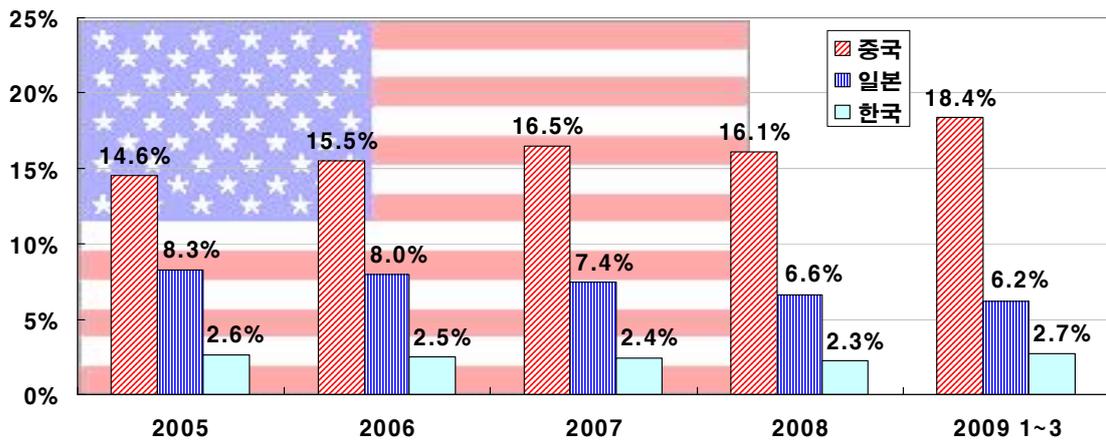
- 미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2.3%에서 2009년 1~3월에 2.7%로 0.4%p 상승

· 일본 상품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2008년 6.6%에서 2009년 1~3월에 6.2%로 하락

1·2차 오일쇼크 이후 일본의 대응 사례

- 반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2008년 16.1%에서 2009년 1~3월에 18.4%로 상승
- 2009년 들어서 한국 상품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 상승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
 - 원/달러 환율은 2008년 연평균 1,102.6원에서 2009년 1/4분기 1,415.2원으로 28.4%가 상승
 - ※ 원/미달러(기준환율, 평균): 1,024.3('05년) → 955.5('06년) → 929.2('07년) → 1,102.6('08년) → 1,415.2('09년 1/4)
- 한편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 상승은 불황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으로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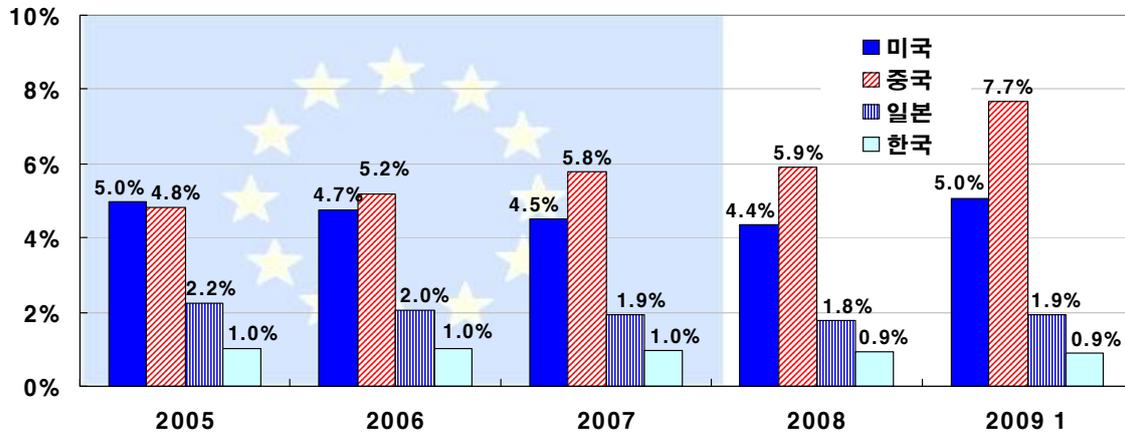
<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 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 원/유로 환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품의 EU 수입 시장 점유율은 2008년 0.9%를 기록한 후 2009년 1~3월 기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원/유로 환율은 2008년 연평균 1,606.8원에서 2009년 1/4분기 1,845.4원으로 14.8% 상승
 - ※ 원/유로(평균): 1,273.9('05년) → 1,199.3('06년) → 1,272.7('07년) → 1,606.8('08년) → 1,845.4('09년 1/4)

< EU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 시장점유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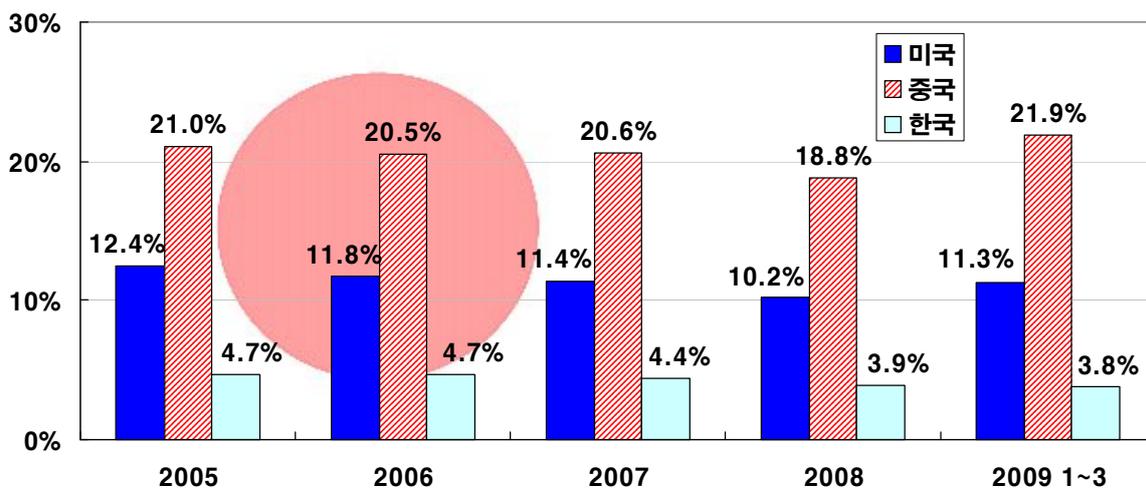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 일본 수입시장에서도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3.9%에서 2009년 1~3월 기간 3.8%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원/엔 환율은 2008년 연평균 1,076.6원에서 2009년 1/4분기 1,509.6원으로 40.2% 상승하였음

※ 원/100엔(평균): 930.7 ('05년) → 821.5 ('06년) → 789.8 ('07년) → 1,076.6 ('08년) → 1,509.6 ('09년 1/4)

<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 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3) 분석 배경

○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많은 부분 환율 효과의 영향을 받고 있어 환율 효과가 사라지면 점유율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

- 시장 점유율 상승은 일면 품질, 기술 등 비(非)가격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여전히 시장점유율 상승의 상당 부분은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상승 효과(가격 경쟁력 상승)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판단됨

· 2009년 1/4분기 현재 원화는 불과 1년 사이에 달러화에 대해 39%, 엔화에 대해 55%, 유로화에 대해 16%, 위안화에 대해서는 42%의 절하가 이루어졌음

- 현 상황에서 향후 원화 환율은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점이 문제로 지적됨

· 즉, 반대의 환율 효과에 의해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해외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음

○ 과거 엔고 시대 일본 기업들의 수출 전략을 살펴보고, 향후 예상되는 원고 수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가 노력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함

- 이에 과거 7, 80년대 일본 기업들이 엔화 환율이 급락하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오히려 세계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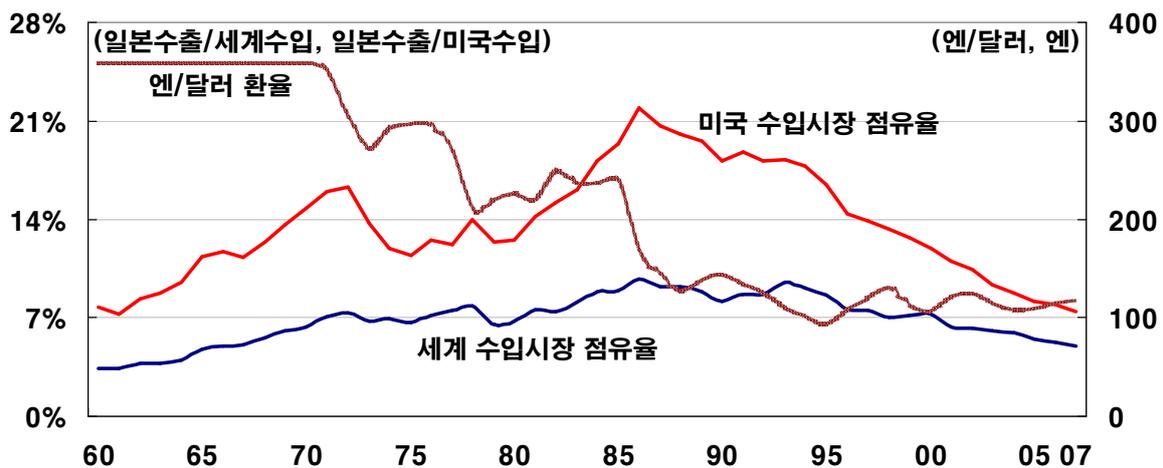
-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수출 기업들과 정부가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함

2. 오일쇼크 이후 일본 상품의 해외 시장점유율 추이

○ (일본 상품의 세계 시장점유율) 70년대 초반 이후 엔/달러 환율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였음에도 일본 상품의 세계 수입 시장 점유율은 90년대 중반까지 상승세를 지속

- 일본이 70년대 초반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엔화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
 - 엔화는 1970년 달러당 360엔에서 1989년 138엔까지 하락함
-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일본 제품의 세계 수입 시장 점유율은 1970년 6.3%, 1980년 6.8%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 그러나 1985년 9월에 이루어진 G5 플라자 합의로 1년 만에 엔화 가치가 41.4%가 절상됨에 따라 일본 제품의 세계 수입 시장 점유율은 1986년 가장 높은 수준인 9.8%를 기록한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됨
 - 1985년 이후 미국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1985~1995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평균 19.0%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음

< 일본산 제품의 미국 및 세계 수입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FS), 한국무역협회, IMF 무역통계.
 주: 엔/달러 환율은 연평균.

3. 오일쇼크에 대응한 일본 수출 기업들의 대응

○ 일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노력

- 일본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195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80년대에도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1970년대 일본 제조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5.8%로 G7국가 평균인 4.4%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 1980년대에도 3.7%로 G7 평균인 3.5%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

< G7국의 시기별 제조업 노동생산성증가율(근로시간당 산출 기준) 추이 >

	1951~59	1960~69	1970~79	1980~89	1990~99	2000~07
미 국	2.1%	3.4%	3.1%	3.4%	4.3%	5.0%
캐 나 다	3.8%	4.4%	3.9%	2.5%	3.3%	1.3%
프 랑 스	3.4%	7.1%	4.2%	4.3%	3.6%	3.5%
서 독	7.4%	6.2%	4.7%	2.3%	—	—
이탈리아	5.7%	6.6%	6.6%	3.6%	2.3%	-0.2%
영 국	1.8%	3.9%	2.7%	4.8%	2.3%	4.1%
일 본	9.8%	10.3%	5.8%	3.7%	3.1%	3.7%
평 균	4.9%	6.0%	4.4%	3.5%	3.2%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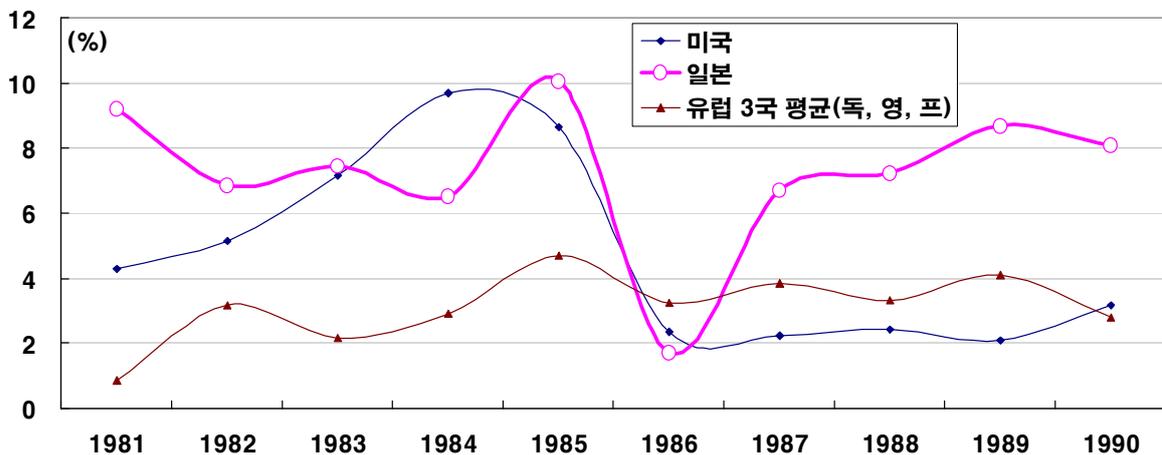
자료: 美 노동부 노동통계국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주: 1996=100 기준으로 작성된 시간당 산출 노동생산성 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임.

- 일본이 80년대까지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JIT(Just-in-Time)으로 대변되는 일본 기업들의 생산성 증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
 - (JIT의 정의 및 역사) JIT란 낭비요소가 최소화된 효율적인 생산의 운영 및 통제 시스템을 지칭함
 - 이는 도요타자동차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으로, 1970년대부터 일본기업들에 도입되어 일본의 제조업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Berger, et al., 1989)
 - (JIT성과) JIT시스템은 생산성 증대, 구매비용 감축 및 기업전반에 걸친 개선 효과를 가져와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음

○ 연구 개발 투자 확대에 의한 기술력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노력

- 1981~1990년의 기간 동안 일본의 R&D 투자 증가율은 연간 7.25%를 기록할 정도로 일본은 1980년대 연구개발 투자를 크게 확대함
 -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유럽 3국(독일, 영국, 프랑스)의 연평균 R&D 투자 증가율은 각각 4.72%와 3.12%에 그침
 - 이에 따라 R&D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1981년 2.33%에서 1990년 2.99%로 증가하였음

< 주요국 총연구개발비 증가율 추이 >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August 2008.

< 주요국 총연구개발비/GDP 비중 추이 >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연평균
독 일	2.35	2.42	2.43	2.43	2.60	2.63	2.74	2.73	2.71	2.61	2.57
미 국	2.34	2.51	2.58	2.64	2.75	2.72	2.69	2.65	2.61	2.65	2.61
영 국	2.38	2.38	2.19	2.19	2.24	2.25	2.19	2.13	2.14	2.14	2.22
이탈리아	0.86	0.88	0.93	0.99	1.10	1.11	1.16	1.19	1.21	1.25	1.07
일 본	2.33	2.42	2.56	2.64	2.77	2.73	2.81	2.82	2.91	2.99	2.70
캐 나 다	1.22	1.37	1.34	1.38	1.42	1.46	1.41	1.38	1.45	1.51	1.39
프 랑 스	1.90	1.99	2.03	2.12	2.17	2.15	2.19	2.19	2.23	2.32	2.13
G7평균	1.91	2.00	2.01	2.06	2.15	2.15	2.17	2.16	2.18	2.21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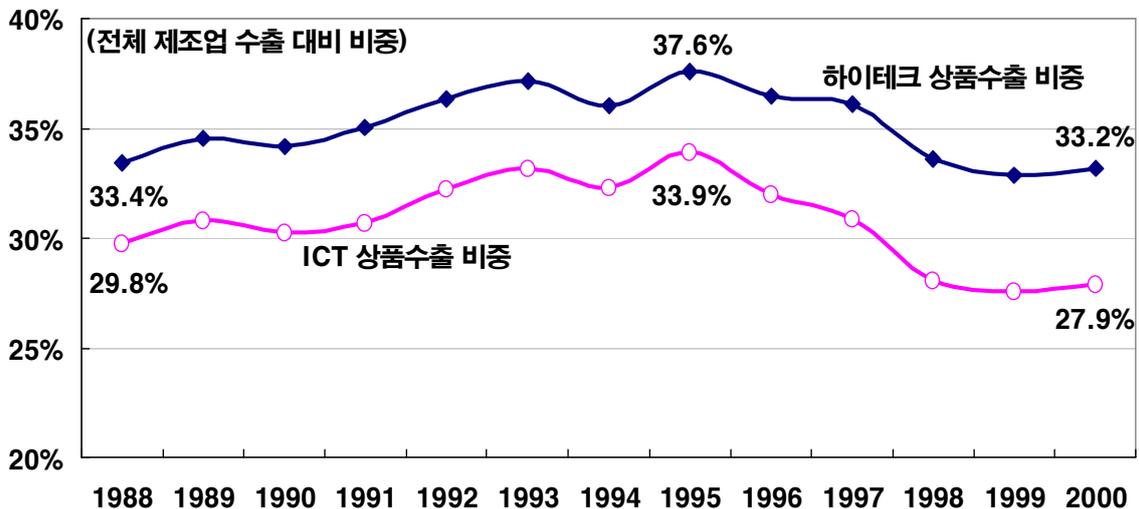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August 2008.

주: 영국의 경우 1982년 1984년 자료는 결측치, 따라서 각각 1981년 및 1983년 자료를 준용.

1.2차 오일쇼크 이후 일본의 대응 사례

- 플라자 합의 이후 본격화된 엔고 시대에서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늘려 나감
 - OECD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총 제조업 수출 중에서 하이테크 제품(High Technology Manufactures)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33.4%에서 1995년 37.6%로 증가함
 - 하이테크 상품의 수출 비중은 1995년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2006년에는 22.7%까지 하락함

< 일본 총제조업 수출 중 하이테크 상품 및 ICT 상품 수출 비중 >



자료: OECD, STAN Bilateral Trade Database (BTD), 2008 edition.

주: 하이테크 상품은 OECD 무역 통계 분류중 “High Technology Manufactures”, ICT 상품은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Manufactures”에 해당됨.

○ 일본 기업들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 노력

- 1987년만 하더라도 일본산 자동차의 품질이 높아 미국 시장에서 불량률이 낮은 9대 자동차 모델중 일본산 자동차가 7개를 차지함
 -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중반까지도 이어져 1994년 상위 9개중 4개를 일본산 자동차가 차지함

< J.D. Power의 IQS 조사결과 추이 >

순위	1987년		1990년		1992년		1994년	
	브랜드	IQS	브랜드	IQS	브랜드	IQS	브랜드	IQS
1	벤츠	110	렉서스*	82	인피니티*	70	렉서스*	54
2	아쿠라*	118	벤츠	84	렉서스*	73	도요타*	69
3	닛산*	125	도요타*	89	도요타*	85	인피니티*	75
4	도요타*	127	인피니티*	99	혼다*	105	링컨	76
5	혼다*	132	뷰익	113	닛산*	108	새턴	78
6	포르쉐	133	혼다*	114	새턴	109	머큐리	86
7	마쯔다*	140	닛산*	123	링컨	114	뷰익	91
8	미쓰비시*	144	아쿠라*	129	아쿠라*	115	벤츠	91
9	수바루*	145	BMW	139	울스모빌	121	혼다*	92

자료: The Power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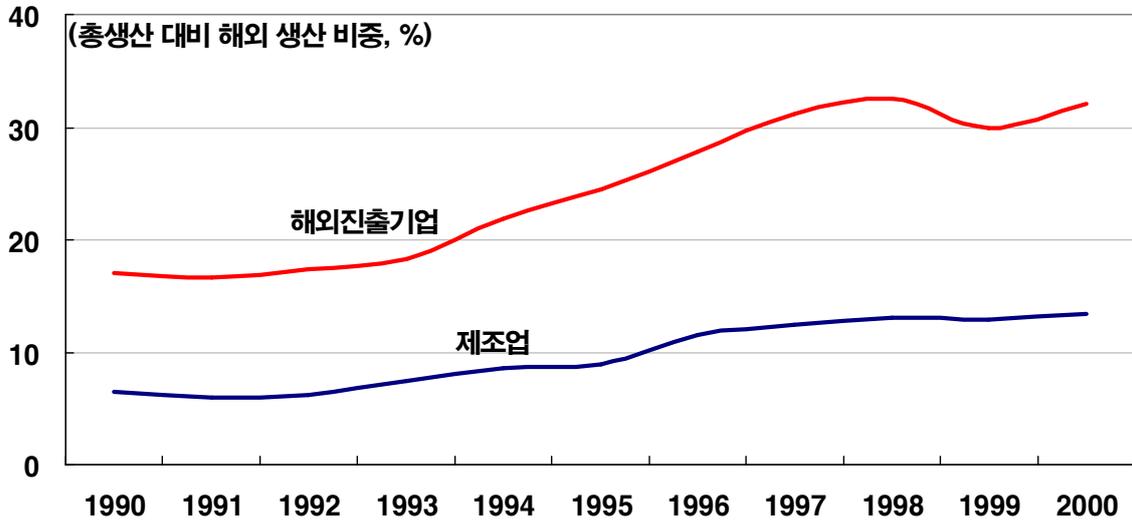
- 주: 1) IQS(Initial Quality Study, 초기 품질 지수)는 신차 100대당 발생하는 불량률을 의미함.
- 2) * 표시는 일본산 자동차 모델임.

- 이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경우 지속적인 TQC(Total Quality Control)로 대변되는 품질 관리에 주력하였기 때문임
 - (TQC의 정의 및 역사) 조직, 생산 및 비제조 전분야에 걸쳐 업무수행의 질을 높이는 품질관리 방식으로, 60년대 일본에서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됨
 - (성과) TOQ는 전 임직원들이 고객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서 동일한 목표와 비전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노사관계 및 총괄적인 생산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게 됨
 - TQC의 추진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원자재 및 부품의 품질향상, 재고 감소 및 고객서비스 시간 단축 등 비용절감과 품질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음

○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고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가격 경쟁력 상실을 극복

-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가격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 80년대 후반부터 일본 기업들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함
 - 이에 따라 1990년 6.4%에 불과하였던 제조업 생산중 해외생산 비중은 1995년 9.0%로 높아짐

< 일본의 해외생산 비중 추이 >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4. 시사점

- 첫째, 아직은 우위에 있는 가격 경쟁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국내 소비자든 해외 소비자든 소비 행위에는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아직은 환율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격경쟁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가별 소비 시장의 특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시장별 소비자 니즈와 기호를 파악하고 이를 제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됨

○ 둘째, 향후 예상되는 원고 시대를 대비하여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성과주의의 확대, 임직원의 사기 진작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함
- 특히 전사적인 원부자재 및 제품 유통 과정의 단순화, 아웃소싱의 확대, 최적 수준의 재고 관리 등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셋째, 비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가격 경쟁력 하락을 극복해야 할 것임

- 앞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하게 되면 중국, 아세안 등 높은 가격 경쟁력을 지닌 국가들의 수출 시장 공략이 가속화될 것임
 - 따라서 품질, 기술과 같은 비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해외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 의한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 특히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넷째, 세계경제 침체를 기회로 삼아 해외 시장 확대에 주력해야 함

-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금융 시장의 경색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여 글로벌 투자 활동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해외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임

1·2차 오일쇼크 이후 일본의 대응 사례

- 특히 중국, 동남아 등 신흥 시장에 대해서 우리 수출 기업과 현지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상 유관 기관들의 시장 및 유통망에 대한 분석과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다섯째, 향후 예상되는 원자재가 상승이 생산비용 급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은 물론 중국의 경우처럼 정부 차원의 에너지, 원자재 등에 대한 저렴한 공급처 확보 노력이 요구됨
- 특히 국제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 해외 자원 확보에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급격한 원고를 막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여섯째, 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환경 개선 노력이 요구됨

- 민·관 공동의 해외 IR 개최 등을 통해 국가와 기업에 대한 외국 구매자들의 호감도를 높이고 한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세계 경제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요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최근의 국제 유가의 재상승으로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 산유국에 대한 수출확대에도 노력해야 함 **HRI**

주 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02-3369-4030)

전해영 연구원 (haloween@hri.co.kr, 02-3669-4406)

■ 2009년 하반기 산업 전망

1) 전망의 전제 조건

○ (대외) 하반기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거나 글로벌 견인 축의 부재로 회복 속도가 완만할 것임을 가정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겠으나, 금융 시장의 위기와 혼란의 영향으로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반면 중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내수 경기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으로 보일 것으로 기대

- 이에 따라 세계 교역은 상반기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국제금융시장에 추가적인 교란 요인이 없고,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원유 및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국제 원자재가의 상승세를 전제

○ (국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다소 개선되는 '상저하고'의 경기 패턴을 보일 것을 전제로 함

- 소비와 설비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겠으나, 건설투자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수출 경기는 선진국 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중국 내수 경기가 양호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상반기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

2) 하반기 산업 경기 흐름의 주요 특징

○ 글로벌 경제의 미약한 회복세로 수출 산업의 불황 지속

- 하반기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글로벌 견인축의 부재로 그 회복속도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철강 등 국내 주요 수출 산업들의 경기 부진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해운 산업도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수주 산업인 조선 산업은 기존 확보된 대규모 수주 물량의 영향으로 호조세가 예상
- 한편 일부 내수 산업의 경우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산업 경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특히 건설 산업은 4대강 살리기, SOC 확충 등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공공·토목 부문 경기가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구조조정 단계 차이에 따른 산업별 경기 격차 발생

- 글로벌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IT산업(특히 반도체 산업)이 단가 개선과 세계 수요 상승이 맞물리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르게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자동차 산업은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보다 산업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 국제 유가 상승의 산업별 상반된 영향력 유발

- 중국, 중동 등의 투자 확대로 글로벌 과잉 설비 상태인 석유화학 산업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가 급증 요인을 판매 단가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도 연료비 상승으로 자동차 구매 동기가 하락하여, 내외수 시장 모두 수요가 급감할 우려가 존재
- 그러나 산유국들의 구매력 회복으로 인한 해외 건설 수주 확대가 국내 건설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3) 주요 부문별 전망

○ (조선) 수주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 수주 물량의 영향으로 선박 건조 부문은 증가세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상반기 현황** : 기존 확보된 수주 물량으로 건조량은 높은 증가세 지속, 그러나 세계 경제 불황으로 수주 실적은 급감
- **하반기 전망** : 수주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조량 증가세도 둔화되어 전반적인 업종 경기는 상반기보다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철강) 대내외 수요 급감으로 업종 경기 부진 지속이 예상되나, 중국의 철강 수요 확대로 침체 폭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상반기 현황** :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 철강 수요 급감과 단가 하락으로 산업 생산이 크게 위축
- **하반기 전망** : 세계 철강 수요 침체 지속과 국내 전방산업인 조선, 자동차, 기계 산업의 침체로 업종 경기 부진 예상
 - 다만 중국 내수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對 중국 철강 수출 경기 회복이 예상되어 업종 경기가 소폭 반등할 가능성도 존재

○ (기계) 하반기 경기 회복 조짐으로 기계수주 수요 증가가 예상

- **상반기 현황** : 글로벌 경기 불황에 따르는 설비투자 침체로 국내 기계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세를 기록
- **하반기 전망** : 그러나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선제적 생산 여력 확충 노력으로 기계 수요도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미국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의 반사 이익이 수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 **상반기 현황** :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자동차 수출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 위축으로 내수 판매도 급감
- **하반기 전망** : 미국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수출 부문에 반사 이익을 기대, 그러나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 부진으로 큰 폭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석유화학)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정유 업종은 경기 회복이 예상되나, 나머지 석유 화학 업종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상반기 현황 : 중국 수출이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세계적인 수요 둔화 및 과잉 공급의 영향으로 침체 국면이 지속중

- 하반기 전망 : 중국, 중동의 석유화학 투자 신증설로 인한 과잉 공급이 미약한 수요 회복세를 압도하면서 국내 업계의 채산성 악화가 전망

○ (IT) 다른 산업보다 먼저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 그러나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상반기 현황 : 세계 수요 급감과 글로벌 업체간 경쟁 격화로 채산성 악화가 빠르게 진행

· 반도체 산업의 경우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었으나, 상반기말 D램 가격이 소폭 상승세로 전환

- 하반기 전망 :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감산 효과로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특히 반도체 부문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해운)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여 물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상반기 현황 : 2008년 이후 세계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국내 해운 경기도 하강 국면에 진입

- 하반기 전망 :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회복 속도가 미약하여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다만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벌크선 및 유조선 부문 경기의 소폭 회복 기대

○ (물류) 물량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가마저 하락하여 업계 채산성이 악화될 우려가 존재

- 상반기 현황 : 국내 소비 급랭에 따른 시장 수요 위축으로 물류 산업 경기의 침체 국면이 지속

- 하반기 전망 : 하반기 물량 감소와 단가 하락으로 업계 채산성 악화가 우려

○ (건설) 건축 부문 침체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 발주 증가와 해외건설 경기 회복으로 침체 국면은 벗어날 것으로 전망

- 상반기 현황 : 주택 경기 침체로 건축 부문 경기 급감, 단 전체 건설투자는 SOC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

- 하반기 전망 : 경기 활성화 및 국토 균형개발정책으로 공공부문 건설이 확대되면서 건설 수주가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유가 상승으로 중동 국가들의 구매력이 부활하면서 해외 건설 수주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HRI**

산업전략본부 (juwon@hri.co.kr, 02-3369-4030)

< 하반기 산업 전망 개요 >

	2008년	2009년		비 고
		상반기	하반기(E)	
조 선				- 신규 수주는 급감세가 예상 - 기존 대규모 수주 잔량으로 생산 호조 지속
철 강				- 글로벌 경기 침체으로 세계 수요 위축 지속 - 하반기에도 전방산업 침체로 불황 불가피
기 계				- 투자동기 약화와 여력 부족으로 수요 부진 지속 - 하반기말 경기 회복 조짐으로 수주 반등 기대
자동차				- 유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로 수요 위축 예상 - 글로벌 구조조정으로 다소의 반사이익 기대
석유화학				- 하반기말 수요 물량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 - 단 경쟁심화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전망
I T				- 타 업종보다 가장 먼저 회복 국면에 진입 예상 - 반도체는 치킨 게임 종결로 빠른 회복 기대
해 운				- 교역량 감소 속 선복량 급증으로 불황 지속 - 단 원자재가 상승으로 유조선 및 벌크선 부문은 소폭 개선 기대
물 류				- 소비 침체에 따른 시장 수요 위축 지속 - 하반기 물량감소 및 단가하락으로 수익성 악화
건 설				-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축 부문 부진 장기화 - SOC투자 확대로 공공부문은 상대적 호조 예상 - 국제 유가 상승으로 중동 지역 수주 회복 전망

주 : 는 아주 나쁨, 는 나쁨, 는 보통, 는 좋음을 의미함.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구 분		2008(E)					2009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체	상반기	하반기	전체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5.5	4.3	3.1	-3.4	2.2	-4.1	-0.2	-2.2	
	최종소비지출 (%)	3.9	2.6	2.0	-1.9	1.6	-2.2	-0.6	-1.4	
	민간소비 (%)	4.0	2.3	1.4	-3.7	0.9	-4.2	-1.4	-2.8	
	총고정자본형성 (%)	-0.5	0.6	1.8	-7.3	-1.7	-5.0	0.4	-2.3	
	건설투자 (%)	-1.9	-0.3	0.2	-5.6	-2.1	1.8	1.9	1.8	
	설비투자 (%)	1.5	1.1	4.3	-14.0	-2.0	-20.3	-2.6	-11.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52.1	-1.3	-85.8	75.2	-64.1	175	70	245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66	-3	-79	15	-133	156	21	177
		수출 (억 \$)	994	1,145	1,152	931	4,223	1,669	2,006	3,675
		증가율 (%)	(17.4)	(23.1)	(27.3)	(-9.9)	(13.6)	(-22.0)	(-3.6)	(-12.6)
		수입 (억 \$)	1,061	1,148	1,231	915	4,353	1,513	1,985	3,498
증가율 (%)	(28.9)	(30.5)	(43.0)	(-9.0)	(22.0)	(-31.5)	(-7.4)	(-19.6)		
기타	소비자물가 (평균, %)	4.7					2.9			
	실업률 (%)	3.2					4.0			
	국제유가(Dubai, 달러)	94.29					65 달러 내외			
원/달러 환율(원, 평균)		1,103.36					1,250			